남북 청년들의 뜨거운 한판 승부 축구연극 'PASS'

극단 산, 20일 광산문화예술회관
'경평대항축구전' 실화 바탕 제작
분단 전 경성·평양 지역친선 경기
38선 앞둔 그 시절 미완의 이야기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경성(서울)운동장에서 시작된 '축구대항전'. 해방과 함께 남북이 갈라진 상황, 1946년 3월 경성과 평양의 젊은이들은 38선을 넘고서 뜨거운 한판 대결을 겨룬다.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는 가운데, 찰나 같은 득점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평양팀이 1대0으로 승리하면서 경기는 마무리된다. 그날 밤 소련에서 '38선, 남북 간 왕래 금지 조치강화'가 공포되자, 다음번엔 평양에서 만나기로 하고 평양팀은 육로가 아닌 바닷길을 통해 월북하기로 하는데….

내일을 꿈꿀 수 없었던 해방공간, 청춘들의 열정과 사랑을 유쾌하게 펼쳐낸 축구연극 'PASS'가 오는 20일 광산문화예술회관 무대에 올려진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전문예술단체 극단 산이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사업'을 통해 광주 관객과 만난다.

이 연극은 실제 1945년 해방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행된 '경평대항축구전'을 소재로 창작된 작품이다. 당시 청춘들의 꿈과 희망, 분단으로 미완이 될 수 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100분간 역동적이고 경쾌하게 펼쳐진다.

연극은 민족 해방과 분단이라는 역사적 배경, 역동적인 스포츠, 안무와 민요 그리고 시가 어우러진 리드미컬한 연출이 특징이다. 축구를 소재로 한 연극인만큼 실감 나는 축구 경기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 무대는 실제 축구경기장과 같이 연출됐으며 관객은 관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응원단이 되기도 하며 연극 속으로 몰입할 수 있다. 또 춤과 노래, 민요, 타악 등이 결합된 화려한 퍼포먼스와 동시에 만해 한용운의 서정적인 시에 멜로디를 더한 다양한 음악을 통해 청춘들의 사랑 또한 감성적으로 표현했다.

축구연극 'PASS' 한 장면. 극단 산 제공

연극의 출발이 된 '경평대항축구전'은 실제 1929년 10월 서울 휘문고보 운동장에서 시작된 지역친선 경기였다. 일제강점기 당시 남과 북이 나뉘기 이전, 경성축구단과 평양축구단으로 민족이 축구를 통해 만났고 서로 지역을 오가며 친선경기를 펼친 것이다. 1929년부터 1935년까지 경성과 평양을 오가며 '경평대항축구전'이 진행됐지만, 일제의 구기 종목 금지로 인해 1935년 이후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던 와중 해방을 맞이하고 1946년 3월 11년 만에 '경평대항축구전'이 다시 개최된 것. 반가움도 잠시, 조국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면서 해방 후 첫 경평대항축구전이자 마지막 경평대한축구전으로 남게 된다. 이는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역사상 남북이 서로의 지역을 오가며 하나의 운동장에서 함께 축구를 한 마지막 경기로 남아있다.

극 상에서는 점점 선명해지는 38선을 앞두고, 경성팀 스트라이커 한강산과 평양팀 응원단장 백지연의 이루어질 수 없는 러브 스토리가 전개되고 애틋함을 더한다. 관객은 무대 위, 경성팀과 평양팀이 함께 스포츠를 즐기고, 웃고, 만나고, 헤어지는 모습을 보며 어느새 하나의 마음으로 모여 그들을 바라보게 된다. 그들의 청춘과 사랑의 이야기는 한국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연극은 오는 20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오후 1시와 5시, 총 두차례 공연된다. 티켓 가격은 전석 만원이고 예매는 광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공연시간은 100분이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김성민 작 어무니의 시간.

그리운 유년의 시절 풍경, 김성민 '어무니의 시간' 展

28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

무등현대미술관은 김성민 사진전 '어무니의 시간'을 오는 28일까지 이어간다. 가난했지만 평화로웠던 시절의 풍경이 펼쳐진다.

김성민 작가는 청산도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어릴 적 시간과 기억이 머무는 청산도의 풍광에 관한 관심으로 '슬로시티 청산도 돌담', '어릴 적 풍경', '어머니에 기억' 등은 그의 주된 사진의 관찰과 연구의 소재였다.

렌즈 속 고향의 시간은 아직도 느리고 평온하게 흐른다. 무너져가는 돌담 속에는 노모(老母)의 쓸쓸함과 세월이 짙게 묻어있다. 버리기가 아까워 하나하나 모아놓은 세간살이들. 풍족하지 않은 풍경은 고향에 대한 향수를 더한다.

김성민 작가는 작가노트를 통해 "'공기 읽기'는 나의 시각적 표현의 연습 시간이다. 빛으로 삶을 만지고, 빗는 작업이 고전적이겠지만 내 사진 작업의 일관된 개념이며 내가 짊어져야 할 사진적 사명이다"며 "사진 작업을 통해 삶의 공간을 시각적 수단으로 해체하고 조립해 모든 사람과 함께 감동할 수 있는 삶의 새로운 정의를 해석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성민 작가는 갤러리 생각상자 단체전 '여덟 색깔 무지개', 담빛예술창고 특별전 '재생된 공간 수집된 관계', 전일빌딩245 시민갤러리 특별전 '생각의 무늬' 등에 참여하고 사진집 '어무니의 시간', '돌담소리' 등을 펴낸 적 있다. 무등현대미술관은 동구 증심사길에 있다. 전시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가능하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 **도선인 기자**

정재일 작가와 함께 종이접기 미학 속으로

6·20일 광주시립미술관 진행
특별전 '우주의 언어-수' 연계

광주시립미술관은 절찬리 열고 있는 여름특별전 연계행사로 세계 무대에서 활동 중인 종이접기 정재일 작가를 초청해 종이접기의 미학을 소개한다. 오는 6일과 20일 각각 오전 11시와 오후 2시, 3시 세 차례 '우주의 언어-수 x 한국미술명작'가 열리고 있는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참여작가 정재일과 함께 하는 수학놀이'가 무료로 진행된다. 해당 전시 티켓을 구매한 관람객이라면, 온라인(https://naver.me/FlZU7xXd)과 미술관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현대미술의 한 분야로 자리 잡은 종이접기의 미학적·수학적 의미를 설명하고 누구라도 종이접기에 입문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방법을 알려준다. 또한 종이접기가 건축과 공학 등 다양한 분양에서 이용되고 있는 것을 소개하고 미래 산업에서 종이접기의 활용 가능성 등을 전망한다.

전시 참여작가 정재일은 '2015 세계 종이접기 창작 작품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 현재 대기업에 다니면서 종이접기 작가로 활동하는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그는 종이로 접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섬세하고 역동적으로 표현해 종이접기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는 평을 받는다.

특히 종이의 크기와 두께, 질감 등에 맞춰 작품을 창작하고 머릿속에 복잡한 설계도면을 그려서 바로 종이접기를 한다는 점이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낸다.

광주시립미술관 관계자는 "종이접기는 한 장의 종이를 자르지 않고 오직 접기만으로 사물을 만드는 기술로 수학적 설계가 접목되면서 단순 놀이가 아닌 예술로 거듭나고 있다"며 "종이접기가 현대미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정재일 작가와 함께하는 이번 행사가 관람객들의 일상에 새로운 시각을 주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립미술관 2024 여름특별전 '우주의 언어-수 x 한국미술명작'은 8월 15일까지 이어진다.

관람 비용은 성인 1만2000원, 청소년 8000원, 어린이 6000원이다. 광주·전남 지역민이면 20% 할인된다.

도선인 기자

광주관광공사·벌크커피 '꿀맛 광주' 브랜딩 나선다

지역 미식관광 M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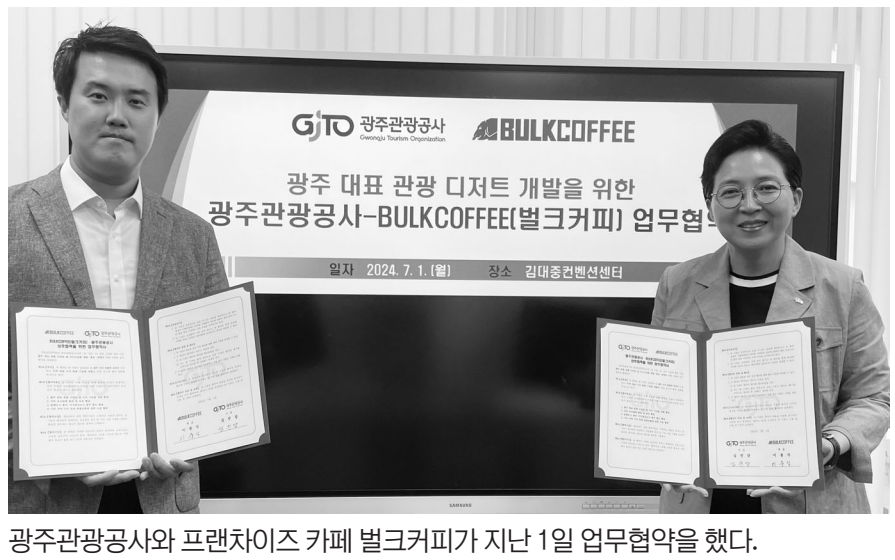
광주관광공사가 광주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 기업인 벌크커피(대표 이윤식)와 지역 미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광주 대표 관광 디저트 및 미식 기념품 개발 협업 △지역 요식업체 발굴 및 육성 협업 △꿀잼도시 광주·미식중심도시 광주 홍보 협업 △기타 지역 미식 관광 진흥에 관한 사업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광주관광공사는 이번 벌크커피와의 업무협약체결을 계기로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광주를 대표할 관광 디저트를 공모하고 전국적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꿀잼, 꿀맛 광주' 도시 브랜딩과 지역 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김진강 광주관광공사 사장은 "광주다운 맛과 스토리를 담은 대표 디저트를 발굴하고 꿀잼, 꿀맛도시 광주 브랜딩을 통해 MZ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다"며 "전국에 200개가 넘는 매장을 가진 벌크커피를 시작으로 지역의 여러 프랜차이즈 및 기업과 협업해 광주관광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광주관광공사는 지난달 무지코리아와 함께 형제송정떡갈비를 비롯한 지역 11개 미식·디자인 기업을 초청해 무인양품 영등포 타임스퀘어점에서 '무인양품 연결되는 시장, 광주편'을 개최했으며, 국내 참여 지자체 중 두 번째로 높은 최대 매출을 달성한 바 있다. **도선인 기자**



광주관광공사와 프랜차이즈 카페 벌크커피가 지난 1일 업무협약을 했다. 광주관광공사 제공